I. 출제의도와 문제해설 (인문계)

1. 2013학년도 논술고사 출제와 기본 방향

2013학년도 고려대학교 인문계 논술고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모의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모의 논술고사는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의 논술고사에 응시하려는 학생들이 시험의 개괄적 형식과 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제 논술고사는 본 모의 논술고사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되 제시문과 논제의 유형과 배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둔다.

2013년 모의 논술고사를 통해 제시된 본 논술고사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시험의 평가요소를 보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다양한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교하여 서술하는 능력
2) 제시문에서 주제의 핵심을 적절히 추론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논술 능력
3) 인간 및 사회 현상의 분석을 위한 기초 수리적 사고 능력

나) 제시문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되, 논제는 고등학교 상위권 수준의 이해 능력, 분석 능력, 추리 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출제한다.

다) 2013년도 인문계 논술고사의 시험시간이 100분으로 축소된 것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시간의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제시한다.

2. 주제 및 제시문 해설

2013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고사의 공통 주제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재구성'이다. 제시문들은 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담은 글들이다.

(1)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학』(김기봉 외),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랑케 & 카』(조지향), 『*The Idea of History: With Lectures 1926-1928*』(Robin

Collingwood)와 『*What Is History?*』(Edward Hallet Carr)에서 채록하여 출제 의도에 맞추어 변형한 글이다. 우선 역사 서술에서 고문서 등 일차 사료의 엄정한 선정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재현하려 한 랑케의 시각과 과거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역사가에 의해 구성되고 의미화 된다는 콜링우드의 구성주의적 관점을 대비시킨다. 그리고 과거 자체를 순수하게 복원한다는 입장과 현재적 해석으로 과거를 재구성한다는 입장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시도했던 카의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기술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소개한 글이다.

(2)는 문학이 사실을 처리하는 방식을 서술함으로써 사실에 관한 문학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학은 사실로부터 취한 소재를 상상력으로 가공한다. 따라서 문학은 단순한 사실 재현이 아니라 사실에서 비롯한 허구이다. 그런데 문학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실제로 벌어진 일보다 그것을 더 생생하게 여기고 사실 이상의 감동을 느끼기도 한다. (2)에서는 그러한 사례로서 찰스 디킨스의 소설과 관련한 일화를 소개한다. 문학이 허구임에도 독자에게 사실 이상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진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학이 전하는 진실은 사실 여부를 초월하는 본질적 가치라고 볼 때,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고서 감동하는 것은 그 가치에 공감하는 것이다. 문학이 전하는 진실의 감동은 독서행위를 통해 공유되기 때문에 문학은 소통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로써 우리는 삶의 의미와 더불어 사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만나게 된다. 상상력이 빚어낸 허구가 현실적 효용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제시문은 문제 출제를 위해 출제진이 직접 집필한 글이다.

(3)은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분석적 고찰』(김상호), 『 대상화와 문제화』(김수미)에서 인용하여 변형한 글이다. 여기에서는 언론의 사실 보도가 그 자체로 절대적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 언론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기사화하는 방식을 예로 든다. '사실의 사회적 구성'을 주장한 버거와 루크만의 시각에서 보면, 해석 공동체의 존재는 주관적 의미를 객관적 사실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재의 재현 과정에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며, 누구의 시선으로 사실을 바라보는가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배집단의 가치와 해석이 객관성을 획득하게 되는 사회적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사실을 발견해 어떻게 기사화하는가는 일종의 선택으로서 사회문화적 가치나 직업적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성을 간과하며 결혼을 타산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만 부각시키는 보도 경향은 지나친 일반화와 과장 보도의 위험이 있다. 외부자에 대한 내부자의 불신과 경계, 낭만적 사랑과 순수한 결혼에 대한 이상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

미지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4)는 사회에 유통되는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때의 의사결정문제에 대한 논리적 과정을 가상의 상황에서 다루고 있다. 참인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의사결정이 옳으면 손실이 0이고 틀리면 손실이 1인 손실구조를 <표 1>과 같이 단순화하였다. 나아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설문조사 정보의 불확실성은 <표 2>와 같은 확률(probability)로 표현된다. 이에 따라 제시한 의사결정방법 A1, A2, A3, A4에 대한 비교의 기준으로 기대손실을 고려할 수 있다. 어떤 특정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기대손실은 발생 가능한 손실을 해당 확률로 곱한 것들의 합이며, 이는 '라'에 특정 경우를 예로 들어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유형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으나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는 아니며,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논제 해설

가) [논제 I] 평가 요소

논제 1은 900자 내외로 (1)의 내용을 바탕으로 (2)와 (3)에 나타난 관점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문제이다. [논제 1]의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1)에 제시된 역사 연구의 3가지 관점과 (2)와 (3)에 제시된 사례의 내용을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2) (1)에 제시된 3가지 관점에 비추어 (2) 문학과 상상력, (3) 언론과 객관성의 문제를 적절하게 연관시켜 비교하고 있는가?

3) (1), (2), (3)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며 이를 논리적으로 논술하고 있는가?

4) 900자 분량의 비교적 긴 글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나) [논제 I] 답안 작성 포인트

1) (1)에 제시된 3가지 관점의 강조점과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2) (2)에 제시된 '문학과 상상력'의 문제를 (1)에 제시된 관점과 연관하여 이해해야 한다. 문학과 상상력의 문제는 랑케의 관점보다는 콜링우드 혹은 카의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문학에서의 상상력의 문제가 콜링우드의 구성주의적 관점 혹은 과거를 순수하게 복원하는 입장과 현재적 해석으로 과거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 선 카의 관점에서 각각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서술해야 한다.

3) (3)에 제시된 '언론과 객관성'의 문제는 (1)에 제시된 랑케, 콜링우드 혹은 카의 관점과 모두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다. 랑케의 객관적 사료의 중요성과 연결하려면 객관 보도의 문제와 연관되어야 한다. 콜링우드의 구성주의 관점은 언론의 사설, 시평, 오피니언 등의 주장 및 논조의 문제와 연관된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주장한 카의 관점은 언론의 해석 공동체 문제와 관련해 설명될 수 있다. 어떤 비교를 선택하건 제시문에 등장한 '결혼이민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논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4) (1)에 제시된 3가지 관점과 (2)와 (3)에 제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에 대한 인식과 재구성'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혹은 주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 혹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문의 사례를 포함한 충분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5) 900자 분량의 상대적으로 긴 글이니만큼, 이해와 비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논술하기 위한 독창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답안지를 작성하기 전에 글의 전달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이 필요하다.

6) 전체 답안지의 길이(850자~950자)를 벗어난 경우, 단락 구성의 완성도 부족, 문장의 완성도 부족, 원고지 사용법 오류, 철자법 오류 등은 감점 요인이 된다.

다) [논제 II] 평가 요소

(4)는 가상의 상황에서 사회에 유통되는 정보의 진위 판단에 대한 논리적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설문조사 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제시한 의사결정방법 A1, A2, A3, A4에 대한 기대손실을 구해야한다. 나아가, H가 참인지 K가 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최대기대손실'을 사

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는지가 평가의 주된 요소이다.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으나,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형식을 통해 응시자의 논리적 사고 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라) [논제 II] 답안 작성 포인트

1) 특정 경우 '라'를 예를 들어 제시한대로,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기대손실은 발생 가능한 손실을 해당 확률로 곱한 것들의 합이다. 이에 따라, K가 참인 경우에 의사결정방법 A1, A2, A3, A4에 대한 기대손실은 다음의 표와 같이 구해진다.

K가 참인 경우 각 의사결정 방법들의 기대손실

의사결정방법	A1	A2	A3	A4
기대손실	1	0	0.3	0.4

따라서, 기대손실의 크기에 따라 A2, A3, A4, A1의 순서로 의사결정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2) 1)번에서와 같이 K가 참이라면 A2가 가장 선호되는 의사결정 방법이 되겠으나, 실제로 우리는 H가 참인지 K가 참인지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H가 참일 때와 K가 참일 때를 나누어 기대손실을 구해야 한다. 각 경우 기대손실을 구하면 다음 표와 같다.

	A1	A2	A3	A4
H가 참일 때	0	1	0.6	0.4
K가 참일 때	1	0	0.3	0.4

A3으로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경우, K가 참이면 기대손실이 0.3으로 작은 편이지만 H가 참이면 기대손실이 0.6으로 커진다. 반면에 A4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H가 참이든 K가 참이든 0.4라는 기대손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A3으로 의사결정을 선택하면 H가 참일 때 큰 기대손실을 볼 것을 감수해야 하는 반면, A4로 의사결정을 선택하면 적어도 큰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는 점이 A4를 선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A4의 '최대기대손실'은 0.4로, A3의 0.6보다 작다는 점에서 최대기대손실이 작은 쪽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A4를 선택해야 한다.

II. 논제별 답안 사례와 평가 (인문계)

1. [논제 I] 우수 답안 사례

가) 사례 1

(1)은 역사가의 역사에 대한 서술을 객관성과 주관성의 입장에서 파악한다. (1)을 보면, 랑케는 역사 기술의 객관성을, 콜링우드는 주관성을, 카는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의 상호 작용에 관심을 기울였다. (2)의 작가와 문학, (3)의 기자와 언론 보도 사이의 관계는 역사 서술의 관점과 관련하여 사실의 인식과 재구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학은 그 자체로는 사실이 아니지만 현실보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 준다. 이는 기존의 사실에 관념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역사를 창조해낸다는 콜링우드의 견해와 연결된다. 작가가 재구성한 현실이 문학이라는 허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반면 언론 보도는 (1)의 랑케와 카의 관점에 연결된다. '사실 그 자체만' 보도하는 것은 랑케의 관점인데, 이는 자칫하면 특수한 사건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언론 보도에서 객관성을 중시하되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관성, 즉 특수한 맥락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는 객관성과 주관성의 상호작용을 주장한 카의 입장과 연관 된다.

그럼에도 (2)와 (3)은 그 내용이 현실의 단면을 전해준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문학과 언론에 내포된 '사실'은 모두 독자들에게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고 현실을 이해하게 한다. 다만 사실의 인식에 대한 관점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실의 전달에 있어, 객관성과 주관성 모두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지표이다. 사실의 객관적 전달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현상 안의 내재적 의미나 가치가 무시될 수 있다. 반대로 주관성의 지나친 강조도 진실한 정보 전달의 왜곡을 낳을 수 있다. 한 예로 티베트의 조장 문화를 들 수 있다. 죽은 자의 시체를 새에게 뜯어 먹히게 하는 조장 풍습은 주변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없다면 야만적인 문화로 왜곡될 수 있다. 한편 지나친 가치개입이 이루어진 사실 전달도 위험성의 소지가 있다. 역사, 문학, 언론 등은 우리의 삶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통로이다.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인 가치개입의 조화가 이들이 현실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1) 이해와 비교

이 글은 (1)의 랑케, 콜링우드, 카의 관점, 그리고 (2)문학, (3)언론의 사례에 대한 이해와 비교를 타당하게 전개하였다. (2)를 통해 (1)에 제시된 랑케의 관점을 읽어낸 부분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카의 관점을 더불어 고려함으로써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2)와 (3) 사이의 공통점에 주목한 부분은 출제진이

예견한 범주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그 나름의 논리를 마련하고 있어서 그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제시문에 대한 섬세한 읽기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2) 논술과 구성

사실의 인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주장을 분명하게 전개하였다. 간결한 사례를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사례에 대한 해석이 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작은 규모의 논설이 되도록 글을 적절하게 구성하였으며 글쓰기의 면에서 기본적인 소양을 비교적 충실히 갖춘 글이라고 평가될 만하다.

나) 사례 2

(1)에서는 사실을 객관적인 서술로 보는 관점, 역사가의 재구성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역사가와의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나타난다. (2)는 사실을 보는 관점에서 (1)의 두 번째 관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역사적 사실이란 현재의 관점에서는 그저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는 간접적이고 추론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문학을 통해 진정한 사실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문학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이 개입된 것이다. 이 상상을 통한 재구성은 실제 현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헛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역사가가 자신이 가진 과거에 대한 제한된 인식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듯이, 문학을 통해 상상력을 가미하여 삶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진정한 사실인 것이다.

(3)은 (1)의 첫 번째 관점과 사실에 대한 입장과 연관된다. 역사적 사실이란 과학과 같은 객관적 서술을 통해 과거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은 (3)이 요구하는 사회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언론 보도는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치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은 지배집단 중심의 사회구조의 이해가 아니라 사회 내부 해석 공동체의 특수하고 독자적인 해독 맥락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론은 특정 현상이 한 사회에 일어난 이유를 묻기 보다는 지배집단 중심의 보편적이라고 믿어지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단순화시켜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수한 사회적 배경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객관적 사료에 대한 치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의 기술이 가장 균형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된다.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 문학가와 진실, 언론인과 사회현상의 사실 등의 관계는 서로 구속되어 있지 않는 평등한 관계이다. 카가 제시한 이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의 산물이 곧 진정한 사실이다.

1) 이해와 비교

각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타당하며 (1)에 대한 (2)와 (3)의 관계에 대한 파악도 적절하여 제시문 사이의 비교가 타당성을 획득하였다. 역사가의 추론과 작가의 상상력 사이에서 진정한 사실에 대한 공통적 지향을 읽어낸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

였다. (3)의 해석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설명 역시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충실하게 수행한 답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논술과 구성

비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위한 과정을 적절하게 구축하였으며 (1)의 관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카의 관점에서 자신의 주장을 선명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에 대한 역사가와 문학가, 언론인의 관계가 구속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를 남긴다. 글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무난하며 문장도 적절하다.

다) 사례 3

문학과 언론 보도에서 객관적 사실의 역할은 보조적이다. 문학이 추구하는 것은 비록 허구일지라도 진실성이 담긴 작품을 통하여 독자의 감수성과 소통하는 일이다. 언론 보도는 언뜻 보면 완벽한 과학적 객관성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비추어지지만, 보다 총체적인 보도를 위하여 해석 공동체의 구성 원리에 대한 이해도 함께 추구한다.

문학가와 사실의 관계는 카가 말한 역사가와 사실의 관계와 유사하다. 문학가는 사실에 기초한 글로 세상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일면 역사가의 성격을 갖는다. 문학가의 작품에 담긴 진실성은 독자에게 삶의 감동과 가치를 발견하도록 한다. 그러한 반응 자체가 또 다른 사실이 되므로 카가 말한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언론 보도는 기본적으로 랑케의 객관적 서술과 그 뜻을 같이 한다. 그러나 보도 집단과 보도 대상 집단의 관점이 다를 경우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해석 공동체의 구조와 과정을 탐구할 수도 있다. 이는 완벽한 객관을 부정하는 콜링우드의 관점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관점인 한편, 지나친 주관성 개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카의 관점과도 연관된다. 결국 언론 보도에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완벽한 객관성은 존재하기 힘들다. 완벽한 객관성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역사가, 문학가, 언론인이 있다면 그 주장 또한 자신의 주관에 불과하다. 그리고 때로는 사실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창작물을 낳는 것이 모든 것을 객관화하려는 노력보다 효과가 크다. 현대사회의 정보 과다는 완벽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에 의해 사실이 재구성됨은 사실이다. 다만 사회에 유통되는 의도적인 거짓과 편파적 의견을 걸러낼 줄 아는 균형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는 합리적 사회소통과 지식 공유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1) 이해와 비교

제시문을 지명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한 희귀한 사례이다. 제시문들을 자신의 이해 속에 용해시켜 재구성할 수 있었기에 이런 식의 답안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

라고 판단된다. 한정된 제시문과 정해진 논제를 전제로 한 글쓰기에서 상투성을 벗어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술 답안들이 상투적인 면모를 다소간 지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답안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성적인 글을 전개하였다. 제시문을 효과적으로 요약하여 간략한 문장으로 표현하였으며 제시문들 간의 비교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논술 시험 본연의 취지를 생각하면서 이 답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2) 논술과 구성

적절한 논리와 정확한 문장으로 글을 전개하였다. 이 답안은 제시문과의 의존 관계를 끊어도 그 스스로 하나의 독립된 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의 면에서 완성도가 높다. 객관성에 대해 이 답안이 취한 회의적 태도는 현실적 타당성을 지니며 그에 대한 대안의 제시도 적절하다. 보편성과 독창성의 미덕을 함께 성취한 답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논제 I] 부족 답안 사례

가) 사례 1

(1)은 역사적 사실을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를 소개한다. 랑케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며 이는 엄격한 사료의 분석과 직관적 이해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콜링우드는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사실 그대로 기록될 수 없다고 본다. 카는 사실과 해석이 하나가 우위에 있거나 더 중요한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며 둘 중 하나를 더 중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2)와 (3)을 봤을 때, (2)는 콜링우드의 관점에, (3)은 카의 관점에 근접하다. (2)는 문학의 허구에 대하여 설명한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주인공과 상황을 실제 일어난 일처럼 서술하여 사람들이 이를 사실처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문학이다. 역사에서 역사가가 자신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문학에서 작가가 경험한 현실을 토대로 쓴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3)은 카처럼 사실과 해석에 대하여 주장한다. (3)은 언론 보도에 대하여 말하는데 객관성, 즉 사실만을 보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점과 대조되는 버거와 루크만의 관점을 소개한다. 이들은 사실이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 해석 공동체가 있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석 공동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해석이 사실의 우위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한 조선족 여성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예시로 들며 객관성의 개념만을 강조하여 다양한 결혼 동기들을 경제적 동기 하나로 지나치게 일반화한 경우를 보여준다. 이는 카가 말했던 오류에 부합한다. (2)와 (3)의 내용 중에는 랑케가 소개한 보편적 의미의 사실이 나타난다. (2)에서는 경험 현실, (3)에서는 언론 보도의 객관성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2)는 콜링우드의 관점을 문학에 의해 설명하며 랑케의 설명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고 (3)은 카의 관점을 언론보도에 적절하게 적용했다.

1) 이해와 비교

이 답안은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하였으며 제시문들 간의 관계도 적절히 파악하여 비교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답안은 이해를 표현하고 비교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제한된 분량 안에서 이해와 비교를 수행하자면 글 안에 제시문의 논지가 효과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논지들 사이에서 비교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답안은 그런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 하였으며 제시문의 세부마저 답안에 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시문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말았다.

2) 논술과 구성

답안의 대부분을 이해와 비교에 사용한 결과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여지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논제에 표현된 비중만큼 자신의 주장이 답안에 전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답안은 그 부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글의 구성이 논제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였으며 서술이 단조롭다. 문장은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

나) 사례 2

(1)에서는 '사실'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보여준다. 우선 과거에 존재한 사실 그 자체, 즉 당시 상황을 복원해야 한다는 랑케의 의견인데, 그는 이것이 사료 비판과 감정이입을 통한 직관적인 이해를 통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콜링우드는 과거는 역사가에 의해 구성되고 의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에서 역사는 관념적이고 주관적이다. 한편 카는 앞선 두 주장을 모두 부인하면 역사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이며 대화라고 하였다.

(2)는 문학이 경험 현실을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 재창조한 것이라 한다. 이것은 분명히 허구이지만 독자들은 소설 속의 내용을 현실 속의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이라고 여긴다. 독자들은 작품이 지닌 호소력 속에서 사실 이상의 진실을 발견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

(3)은 언론이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한다. 버거와 루크만에 의하면 객관성에 앞서서 그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그 보도의 내용은 다시 사회에 영향을 준다. 이처럼 언론은 사회적 맥락에서 보도하고 그 내용은 다시 사회에 영향을 주는 끊임없는 상호적 관계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실재하는 사실을 볼 때에는 사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재창조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체계의 구조화 과정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1) 이해와 비교

이 답안은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논제에서 요구하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는 각 제시문의 핵심적인 논지로 표현되어야 하며 비교는

그 논지들 사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답안은 각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하는 수준에서 멈추었다. 아울러 각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 부정확하다.

2) 논술과 구성

이 답안은 제시문을 순차로 요약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제시문들 사이의 비교는 물론이려니와 논제가 요구하는 자신의 주장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였다. 한 편의 온전한 글을 구성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문장도 부정확하다.

다) 사례 3

역사학자들의 임무는 역사를 밝히는 것이다. 즉 과거의 사실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추구하는 사실이 과연 실재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것이지 아니면 역사가의 주관의 산물인지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소설과 신문을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을 소재로 한 주관적인 매체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허구의 세계인 소설을 읽고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감동하며 공감한다.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소설에는 작가만의 허구의 세계만이 아닌 사실이라 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작가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의 사실같은 세계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소설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성을 획득한다. 이에 비해 신문이란 매체는 사실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매체이다. 그런데 신문은 단지 일어나는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획득할 수 없다. 단편적 사건전달은 오히려 거짓된 정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은 지배집단이 해석공동체를 염두해야 한다. 즉 신문은 주체가 사실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사실성을 획득한다. 소설은 객관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작가의 주관을 통해 사실성을 획득하고 신문은 기자의 주관을 바탕으로 객관적 현실을 이해함으로써 사실성을 얻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실이라는 것이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한 객관적인 것도 아니며, 인간이란 한계 때문에 주관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이해와 비교

우수 답안의 사례 3처럼 이 답안도 제시문을 지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수 답안의 사례 3과 판이하다. 우선 제시문의 중심 주제인 사실의 인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교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논제가 요구하는 바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답안에 서술된 내용 중에는 제시문과 무관한 내용도 들어 있다. 따라서 이 답안은 겉보기에 개성적이라고 오판될 수 있지만 엄밀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오류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수 답안의 사례 3과 외견상 유사해 보이는 이 답안을 부족 답안의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제시문을 지명하지 않는 유형의 답안이 상투화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2) 논술과 구성

이 답안은 제시문을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문맥을 따라 논리를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문장이 부정확하다. 제시문을 부정확하게 이해한 탓에 자신의 주장을 타당하게 개진하지 못하였다. 논술 답안도 한 편의 글로서 완성도가 높도록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답안은 그러한 점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3. [논제 II] 우수 답안 사례

가) II-1

K가 참인 경우, A1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기대손실이 1, A2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기대손실이 0, A3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기대손실이 0.3이고, A4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기대손실이 0.4이다. 따라서 기대손실의 크기에 따라 A2, A3, A4, A1의 순서로 의사결정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특정 사례를 들어 제시한대로, 각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기대손실을 정확하게 구하였으며, 기대손실이 작은 것부터 의사결정방법을 선택하였다.

나) II-2

H가 참일 때와 K가 참일 때를 나누어 기대손실을 구해야 한다. 각 경우 기대손실 즉 오류를 범할 확률을 구하면 다음 표와 같다.

	A1	A2	A3	A4
H가 참일 때	0	1	0.6	0.4
K가 참일 때	1	0	0.3	0.4

A3을 선택하는 경우 기대손실은 최대 0.6이고 A4를 선택하는 경우 기대손실은 최대 0.4이다. 따라서, 기대손실이 최대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A3과 A4의 방법 중 A4를 선택해야한다.

A3의 최대기대손실은 0.6인 반면 A4의 최대기대손실은 0.4이므로, 최대기대손실을 의사결정방법 선택기준으로 삼으면 A4를 선택하게 된다.

4. [논제 II] 부족 답안 사례

가) II-1

K가 참인 경우, A3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기대손실이 0.3, A4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기대손실이 0.4이다. 따라서, 기대손실의 크기에 따라 A2, A3, A4, A1의 순서로 의사결정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의사결정방법 A1과 A2에 대한 기대손실을 구하지 않고 의사결정방법의 선택 순서를 제시하였다.

나) II-2

H가 참일 때와 K가 참일 때를 나누어 기대손실을 구해야 한다. 각 경우 기대손실 즉 오류를 범할 확률을 구하면 다음 표와 같다.

	A1	A2	A3	A4
H가 참일 때	0	1	0.6	0.4
K가 참일 때	1	0	0.3	0.4

H가 참일 때 A4의 기대손실이 A3의 그것보다 작다. 따라서 A4를 선택하려면, 'H가 참이다' 가 그 근거이다.

H와 K가 중 어느 것이 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이므로 'H가 참이다'라는 것은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다) II-2

H가 참일 때와 K가 참일 때를 나누어 기대손실을 구해야 한다. 각 경우 기대손실 즉 오류를 범할 확률을 구하면 다음 표와 같다.

	A1	A2	A3	A4
H가 참일 때	0	1	0.6	0.4
K가 참일 때	1	0	0.3	0.4

따라서 A3의 경우 기대손실은 $0.6\times0.3=0.18$ A4의 경우는 기대손실이 $0.4\times0.4=0.16$이므로 A4의 기대손실이 A3의 기대손실보다 0.02만큼 낮으므로 A4를 선택한다.

어떤 의사결정방법에 대하여, H와 K가 참인 상태에서의 기대손실을 곱한 것은 의미가 없으며 선택의 기준으로 부적절하다.

라) II-2

H가 참일 때와 K가 참일 때를 나누어 기대손실을 구해야 한다. 각 경우 기대손실 즉 오류를 범할 확률을 구하면 다음 표와 같다.

	A1	A2	A3	A4
H가 참일 때	0	1	0.6	0.4
K가 참일 때	1	0	0.3	0.4

따라서 A3의 경우 기대손실은 0.6+0.3=0.9 A4의 경우는 기대손실이 0.4+0.4=0.8이므로 A4의 기대손실이 A3의 기대손실보다 0.1만큼 낮으므로 A4를 선택한다.

어떤 의사결정방법에 대하여, H와 K가 참인 상태에서의 기대손실을 단순히 더한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